

‘빛 속에서 피어나다’ 광양매화축제, 개화 시기 고려 개최

광양시, 기본계획 심의·검토…개화 안정성 최우선 1월말 개최일 확정키로

올해부터 광양매화축제를 개화 시기를 고려 1월 말 확정해 열기로 했다.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양시는 지난 29일 시청 창의실에서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차별화된 제25회 광양매화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심의·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24회 축제 결과를 공유하고 제25회 축

제의 추진 방향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제25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광양) 속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3월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축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개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기상 여건 및 개화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제 개최일을 1월 말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입장료는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상품권 사용처는 축제장 내 부스를 비롯해 다담면 소재 점포, 중마시장, 수산물유통센터 등 기존 범위를 유지해 지역 상권

과의 연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행위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양매화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올해 1월 중 개최일 확정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완성도 높은 제25회 광양매화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지난달 29일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매화축제 개최일정을 1월 말 확정키로했다. <광양시 제공>

무안군, 초고령 사회 진입…2024년 노인인구 19.8%

‘노인등록통계’ 정책자료로 활용

무안군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에 접어들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노인인구는 1만 8398명으로 전체인구 9만 2913명 중 19.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20%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진입했으며, 노인 관련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안군이 노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무안군 노인등록통계’에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

강 등 5대 분야 총 5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무안군 각 실과와 국가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자료를 연계 분석했다.

조사는 2024년 12월 말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안군은 그동안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등이 들어서면서 남약과 오통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유입이 늘어 초고령화 사회진입이 다소 늦춰졌다.

국제연합(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

인구의 7.2%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공표된 무안군 노인등록통계는 무안군 홈페이지 ‘행정공개→군정자료→노인등록통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광진 무안군 기획실장은 “노인등록통계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라며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무안군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일자리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정책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 ‘목포사랑패스’ 발급해 드려요

관광·문화시설 6개소 할인 혜택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관광·문화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목포사랑패스’를 발급한다.

‘목포사랑패스’는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며, 고향사랑e음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스 소지자는 기부일로부터 1년간 목포시가 설치·운영하는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목포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없이 해당 시설 방문 시 휴대전화로 목포사랑패스를 제시하면 된다.

할인 적용 시설은 목포근대역사관 1·2관과 목포어린이아바다과학관, 목포시티투어, 목포문



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등 6곳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패스는 목포를 응원해 주신 기부자들의 뜻이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정봉헌 기자 jbs@kwangju.co.kr

‘GS칼텍스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수료식…아동·청소년 꿈 지원

여수·순천 지역 청소년 15명

GS칼텍스가 지난 29일 여수시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2025년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순천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여수YMCA 관계자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등 약 50명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다. 수료식은 GS칼텍스 바둑단 소속 프로기사들과 함께 하는 자도 대국, 순천지청 소년상담점의 멘토링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성과 공유 영상 상영, 수료증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GS칼텍스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여 처분을 받은 전남동부지역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벌 중심이 아닌 치유와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GS칼텍스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기존 음악치유 중심에서 올해부터는 심리상담과 바둑 활동을 결합한 관·산·민 협력 모델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음톡톡 프로그램에는 여수·순천 지역 청소년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과 GS칼텍스 바둑단 및 한국기원과 연계한 바둑치유 프로그램에 함께 했다.



용성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사법적 처벌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청소년 보호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GS칼텍스 대외협력실장은 “GS칼텍스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465명의 지역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협력기관과 함께 청소년들

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마음톡톡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희망에너지교실’, 청소년 맞춤형 학습교실, 여수경찰서와 함께하는 청소년 성장 플랫폼 ‘새롭고 교실’ 등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난 29일 영암군 덕진면 영보 유리온실 앞에서 유리온실의 실내정원 조성사업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영암군 제공>

영암 영보 유리온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정원 조성사업 안전 기원식

영암군 덕진면 영보 유리온실이 정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영암군은 그동안 방치된 영보 육묘장 유리온실과 그 주변을 새로 단장해 군민의 쉼과 치유 공간으로 꾸민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3억원을 들여 실내 정원화 실외 정원으로 나눠 추진된다. 오는 5월까지 약 2200㎡

규모로 조성될 실내 정원에는 휴게, 전시, 체험 등의 공간이 들어선다.

실외 정원은 3월 시작해 6월까지 운동장 부지와 유휴공간에 작은달빛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방치된 자원을 특별한 정원 명소로 만들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쉼과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흑산면에 공공심야약국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신안군이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야간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흑산면 녹십자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판매는 물론 복약지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흑산면은 신안군의 대표적인 도서지역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상 심야 시간대 약국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정으로 주민과 방문 관광객의 응급 의약품 구입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흑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흙여 등 특산물로 유명한 관광지로서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의료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도서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365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흑산면 약국에서 운영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건 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전남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목포에 개관

전남 서남권 9개 시·군(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의 주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이 목포에 개관했다.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맞은편에 마련됐다. 목포시가 지난 2020년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후 2023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건설 기술심의, 계약심사, 실시계획인가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

사를 진행해 준공과 함께 개관하게 됐다.

플랫폼 내부에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9개 시·군의 관광지와 관광상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또 주요 관광지·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무인 관광안내 키오스크도 설치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을 통해 인근 시·군과의 관광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남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부=문봉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장흥댐 어족자원 활용 대책 마련하라”

전남 9개 시·군 생활용수 공급…장흥군 TF팀 구성

“장흥댐 어족자원 활용방안을 찾아라”

전남 지역 9개 시·군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장흥댐 내 어족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흥군 유치면 일원 193㎢ 면적인 장흥댐(옛 탐진댐)은 지난 2005년 4월에 준공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관리규칙)으로 지정된 이후 일체의 어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모순된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수도·해양수산 등 자체 TF팀을 구성 장흥댐 어족자원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와 함께 댐 조성 20년을 맞이한 장흥댐 내에는 자연 번식으로 배어난 어족자원 영향으로 부영양화·현상과 배설물로 인한 수질악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댐관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공사)가 맡고 댐 내 내수면허가권은 지자체(장흥군)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어족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모순된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수도·해양수산 등 자체 TF팀을 구성 장흥댐 어족자원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